

# 여야 지도부 본격 거리 유세전

### 10·25 재보선 첫 주말... 해남·화순 등서 '세물어'

여야는 10·25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14~15일 각각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세 경쟁을 벌였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의 첫 주말 유세전에서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거담적인 지원유세에 나섰다. 민주당도 한화갑 대표 등 지도부가 대대적인 거리유세를 벌였다.

우리당 김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15일 오후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박양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선대위원장은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과 천정배 의원, 본부장에는 민상홍씨 등 8명이 선

임했다. 지도부는 발대식 직후 해남·진도지역 주요 상가를 돌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수렴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5일 화순 남면과 능주 등 4곳에서 잇따라 거리 유세를 갖고 정완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으며,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화순읍 광덕리 국민은행 앞에서 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14일 신안 도초도와 비금도를 돌며 최영수 군수 후보 지원유세 활동을 펼쳤으며, 장상 공동대표와 이상열 대변인은 인천 간석시장 등지에서 남동을 김완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해실현 파문 속에 지도부가 선거유세를 자제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5일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 박양수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김근태 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박 후보, 주승용 의원.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14일 오후 황우여 사무총장이 원희룡 전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설철호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 및 김영식 신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지난 12일 모 정당 후보의 인

척이 출마회견장에서 금품을 몰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 의장은 이날 "모 후보측이 적지 않은 돈을 나눠줘 또 다시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국소비자연체협의회와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 품목으로 선정된 5개 전남 쌀 브랜드. 왼쪽부터 '프리미엄 호평', '드림 생미', '사계절이 사는 집', '왕궁이 탐낸 쌀골드', '한눈에 반한 쌀'.

## 전남 쌀 대접 '하늘과 땅' 차이

### 나주 '드림생미' 등 5개 지역 쌀 전국 우수 브랜드 쌀 선정 호평

### 브랜드 인증률은 7% 전국 최하위 최고 품질 불구 저질미 취급 우려

전남 브랜드쌀 중 일부는 전국 최고 품질이지만 전체 브랜드 인증률은 전국 최하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체협의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올해 시장 유통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선정된 전국 12개 우수 품목 가운데 전남쌀이 5개나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브랜드는 해남 '한눈에 반한 쌀', 나주 '왕궁이탐낸쌀골드', '드림생미',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강진 '프리미엄호평'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로 전남쌀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전국 최다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반한쌀'은 전국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해 농림부장관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사·도별로 보면 전남이 5개, 경기도와 경북, 충북이 각각 2개, 충남이 1개로 전남이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 전체 브랜드 쌀 품질 인증률은 전국 최하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상표 및 의장 등록은 물론 품질 인증도 받지 않은 '무등록·미인증' 브랜드도 75.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쌀 브랜드는 총 338개로 나타났다. 품질 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24개로 전체 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표 및 의장 등록을 받지 못한 브랜드는 255개로 전체의 75.4%를 기록, 전국에서 충남(8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담양군을 비롯한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완도, 진도, 신안, 목포 등 전남 9개 시·군의 58개 브랜드는 단 1개의 품질 인증도 받지 못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순군선관위는 25일 치러지는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 "10·25보선 투표 합시다"

### 화순군선관위, 투표율 따라 업체 후원금 소년·소녀가장 지급

화순군선관위는 15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들이 투표율에 따라 성금을 협

찬,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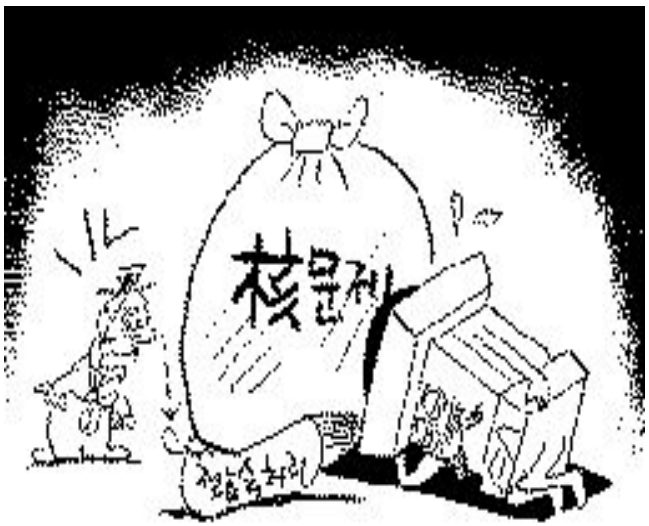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10·25 재

보선의 경우 북 해실현 파문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투표율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번 행사의 참여업체는 (주)광고기획무등, 성민문화사, 한샘OA상사, 수립원한정식, 약산축협소가 등 5개 업체. 업체들은 투표율 50%까지는 20만원, 이후 5%가 높아질 때마다 10만원씩 증액해 60%를 넘어서면 50만원씩을 협찬해 최고 250만원의 성금을 조성하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이젠 깔려서 봐지도 않는구나

## "盧정부 100여개 기관 142명이 낙하산 인사"

### 한나라당 조사특위 주장

한나라당 낙하산인 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봉)는 15일 노무현 정부가 100여개 기관에 142명의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열람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낙하산 인사 유형을 ▲청와대 출신 인사 특혜(33명) ▲17대 총선 및 5.31 지방선거 낙선자 위보(31명) ▲열린우리당 당료에 대한 보상(34명) 등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출신자에 대한 특혜 차원의 낙하산 인사는 기관장과

감사 직책이 주를 이뤘다면서, 김경협 전 청와대 사회조정3비서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임명 등을 예로 들었다. 17대 총선과 5.31 지방선거 낙선자에 대한 위보 차원의 인사로는 당시 총선에서 우리당 후보로 부상에 실패했다 낙선했던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진호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등이 실례로 제시됐다.

순주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 조직기회실장을 지냈고, 고광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민주당 선대위 홍보제작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선 선거본부 보은 인사 케이스이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연협뉴스

## 저소득층 외면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 광주·전남 일부 기관 환자에 진료비 부담 청구도

광주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저소득층에게 저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공·종합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특정 검사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등 진료비를 부담하게 청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의료서비스 소홀=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기(2001~2005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실적결과와 종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4개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광주지역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점수는 평균 47.6점

로 전국 최하위 14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소아당뇨·정신과 사회 재활 진료캠프 운영 등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100점 만점에 44.5점으로 82개 병원 중 하위권인 62위를 기록했다.

광주인광정신병원은 61.5점으로 32위,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은 60점으로 36위였다. 광주 보훈병원의 경우 24.5점으로 전국 82개 병원 중 최하위인 80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은 목표의료원이 10위(80점), 순천의료원이 11위(79.5점),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39위(58

점) 등 평균 64.3점으로 전국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진료비 부담청구 심각=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의 진료비 확인요청은 총 1천237건으로, 이중 415건·7천400만원에 대해 진료비 환불 결정이 났다. 병원들은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 ▲확인되지 않는 선택 진료비 ▲CT 진료비 전액 환자부담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 청구했다.

전남대병원의 진료비 환불 금액이 2천7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조선대병원(1천830만원), 목포 C병원(1천430만원) 등 종합병원이 1~3위를 차지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광주광역시 민주시민장 공고

翠英 洪南淳 先生께서 2006년 10월14일(토) 02 : 10분에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민주시민장으로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 인 : 2006년 10월 17일 (조선대병원 영안실) 08:00
- 영결식 : 2006년 10월 17일 (구.전남도청) 09:00
- 안장식 : 2006년 10월 17일 (국립5.18민주묘지) 11:00

- 고 문 : 김대중, 김영삼, 김원기, 고 건, 이돈명, 이수성, 임채정
- 장의위원장 : 박평태
- 집행위원장 : 김동원
- 장 의 위 원 : 강금자, 김기갑, 김기정, 김민길, 김부원, 강신석, 강신영, 강원구, 강재섭, 김정재, 김향중, 김현주, 고 은, 고광덕, 고재우, 고재욱, 고재철, 고진화, 고홍석, 고홍서, 고희석, 곽태영, 광민스님, 구본희, 구양술, 구재범, 구중서, 권산택, 권영길, 권영두, 권오을, 권철현, 권준기, 김 정, 김 회, 김갑제, 김경주, 김경천, 김관세, 김근태, 김금수, 김기백, 김기석, 김기태, 김낙현, 김남일, 김달익, 김대동, 김대식, 김대혁, 김덕규, 김덕룡, 김도현, 김동기, 김동식, 김동신, 김동원, 김동철, 김동환, 김두원, 김무성, 김문수, 김범남, 김봉수, 김부경, 김상규, 김상근, 김상열, 김상용, 김상운, 김상현, 김산남, 김선문, 김성곤, 김성숙, 김수환, 김양균, 김양배, 김영근, 김영권, 김영용, 김영자, 김영진, 김용균, 김용체, 김용대, 김용환, 김용휴, 김원보, 김원욱, 김원웅, 김철술, 김인주, 김일률, 김장욱, 김정환, 김재구, 김재균, 김재석, 김정길, 김정남, 김준배, 김준철, 김준희, 김준기, 김준태, 김준배, 김준배, 김자하, 김진영, 김태홍, 김포천, 김표진, 김필식, 김하림, 김한길, 김한태, 김해수, 김해자, 김혁규, 김혁중, 김현우, 김형주, 김호준, 김홍석, 김후식, 김후진, 김희선, 나무석, 나상기, 나정숙

- 나중천, 남경필, 남상규, 노광래, 단병호, 류동원, 리영희, 마철렬, 명동성, 문경호, 문규현, 문덕형, 문병관, 문석재, 문석호, 문성근, 문정현, 문학진, 민영준, 박경리, 박계동, 박관용, 박근자, 박기정, 박남선, 박대원, 박상현, 박석우, 박선정, 박선순, 박성렬, 박성창, 박성호, 박승현, 박용재, 박용수, 박용문, 박용철, 박용호, 박원순, 박정규, 박준은, 박준경, 박지택, 박희준, 박호재, 박희강, 박홍석, 변영환, 방철호, 배경춘, 배아섭, 배은심, 배일도, 배종렬, 백기연, 백낙침, 변형운, 서갑원, 서경원, 서명원, 서봉래, 서삼석, 서인봉, 서정식, 서재원, 서하진, 선병렬, 선용상, 선형재, 성대경, 성유보, 손문근, 손재홍, 손화규, 송광운, 송기숙, 송선태, 송인중, 송영복, 송재선, 송희성,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봉성, 신승수, 신순범, 신용하, 신정훈, 신중식, 신창근, 심재철, 안 준, 안 식, 안영률, 안기영, 안병직, 안성래, 안영자, 안재홍, 안종일, 안희욱, 양광성, 양성우, 양인희, 양철호, 양형일, 양희철, 양희승, 양영언, 유기홍, 유병희,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실, 유중필, 유준상, 유태영, 유희경, 윤강욱, 윤신실, 윤문득, 윤봉근, 윤석우, 윤정현, 윤현봉, 이 황, 이기배, 이강철, 이강희, 이건호, 이계경, 이계진, 이광우, 이광재, 이규택, 이균범, 이기택, 이기홍, 이기환, 이낙연, 이만실, 이명박, 이명자, 이복희, 이미경, 이병록, 이병서, 이병희, 이부영, 이상동, 이상문

- 이상민, 이상수, 이상열, 이상철, 이상진, 이상희, 이상권, 이소선, 이수호, 이승기, 이승태, 이승연, 이승재, 이양우, 이연득, 이영권, 이영호, 이영재, 이용희, 이우재, 이원구, 이윤자, 이윤정, 이이호, 이인영, 이인제, 이재길, 이재우, 이재웅, 이정남, 이정배, 이정재, 이정희, 이종민, 이준삼, 이지현, 이진구, 이철원, 이춘설, 이태운, 이태현, 이현철, 이혜자, 이호준, 이호준, 이호철, 이희성, 이희재, 임규석, 임병성, 임우진, 임재경, 임종석, 임해규, 임현오, 임현진, 장근화, 장기표, 장두석, 장영태, 장용주, 장을범, 전갑길, 전병현, 전양복, 전옥주, 전용준, 전중식, 전주연, 정공문, 정광진, 정광훈, 정기연, 정대철, 정동년, 정동채, 정병국, 정병문, 정병철, 정병태, 정석봉, 정성현, 정수민, 정수민, 정운호, 정운찬, 정원희, 정윤수, 정의화, 정진구, 정진호, 정찬용, 정창년, 정창선, 정철용, 정태서, 정태성, 정태희, 정현애, 조 순, 조광환, 조광희, 조국현, 조기정, 조남일, 조봉훈, 조비오, 조성민, 조영목, 조영진, 조재욱, 조점순, 조창철, 조호권, 조홍규, 주승용, 지선스님, 지병문, 지정연, 진관스님, 진선기, 차정남, 차명석, 차철호, 채동성, 천영세, 천운스님, 최 열, 최경주, 최근규, 최병모, 최영도, 최운용, 최은희, 최인기, 최창모, 최환주, 최희성, 한 영, 한갑수, 한광우, 한상진, 한상철, 한원상, 한원석, 한희갑, 한세용, 한수남, 허 정, 허경만, 허대철, 허성관, 현지스님, 혜할스님, 홍근수, 홍문표, 홍성우, 홍영기, 홍진태, 황일봉 (가나다순)

• 호 상 : 김영진, 김중추, 유광연

2006년 10월 14일

故 翠英 洪南淳 先生 광주광역시 민주시민장장의위원회위원장 박 광 태